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들이 3일 오전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해단식을 마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년후 소치서 또 일별집니다”

밴쿠버 영웅들 해단식... 김연아 토론토로 출국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던 태극전사들이 4년 뒤를 기약하며 해단식을 가졌다.

대한체육회(KOC)는 3일 태릉선수촌내 챔피언하우스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와 임원을 비롯해 박용성 체육회장과 이 사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홍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개 동계종목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최대 메달과 최고 성적을 자축했다.

한국선수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건 선수촌장의 성적 보고에 이어 박용성 체육회장의 식사, 김대기 차관의 축사, 고홍길 위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박성인 선수단장이 답사를 한 뒤 선수단기를 반납했다. 또 선수단은 오는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다음 대회를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해단식에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20·고려대)를 비롯해 스 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07학번' 삼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이상 21·한국체대), 쇼트트랙 2관왕 이정수(22·단국대) 등이 모두 참석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한국은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역대 최다인 14개의 메달을 획득해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선수단은 해단식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했다. 한편 김연아는 이날 저녁 8시50분 비행기로 훈련 캠프인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V11 OK”...호랑이들이 돌아왔다



타이거즈 선수단 두달간 전훈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
오늘부터 무등경기장서 실전모드...6일 삼성과 시범경기

호랑이들이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두 달 가량의 전지훈련 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귀국했다. 지난 1월 5일 재할조의 캄 훈련을 시작으로 캄과 일본 미야자키, 가고시마에 캄프를 꾸리고 2010시즌을 위한 탐금질을 해왔다.

한국시리즈 2연패를 목표로 겨울을 잊었던 KIA는 귀국 다음날인 4일부터 곧장 '실전모드'에 돌입한다.

6일 시작되는 시범경기에 대비해 선수

단은 4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집결, 귀국 후 첫 훈련을 갖는다. 5일에는 오전부터 훈련이 전개된다.

전지훈련지에서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롯데 자이언츠, 넥센 히어로즈와 연습경기를 갖고 시즌 밑그림을 그렸던 조범현 감독은 삼성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시범경기를 통해 2010 시즌 전력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팬들의 관심사는 역시 '새얼굴'들의 움직임이다.

KIA는 이번 겨울 외부에서 전력을 영입

하는 대신 내부 강화에 주력했다. 내부 경쟁을 통해 세대 교체와 전력 상승을 유도했던 조범현 감독은 전지훈련지에서 전태현과 이종환이라는 '원석'의 가치를 확인했다.

생애 첫 전지훈련에 나섰던 3년차 사이드암 투수 전태현과 연습생 신화를 꿈꾸는 좌타자포 이종환은 전지훈련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KIA의 히든카드로 급부상했다. 시범경기를 통해 이들은 '보석'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받게 된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마운드 '에비

역 4인방' 신용운·김희걸·이상화·차정민도 조범현호의 새얼굴. 볼펜 다지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조범현 감독의 전지훈련 성과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확정 발표됐다.

2010 시즌 주중 경기는 오후 6시30분, 토·일요일과 공휴일 경기는 오후 5시에 시작된다. 3월 27, 28일 예정된 개막 2연전과 5월5일 어린이날 경기는 오후 2시에 열린다.

KIA는 오는 27일 잠실을 찾아 두산 베어스와 개막 2연전을 갖고 V11을 향한 대장정에 오른다. 어린이날에는 한화 이글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봄날의 축제를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682대1 뚫고 연아와 함께

행운의 주인공 10명

6일 토론토서 디너파티

삼성전자는 김연아 선수와 저력식사를 함께하는 '꿀든 제로 디너파티'에 참석할 1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하우젠 에어컨 제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팬들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21일부터 20여일간 '김연아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마련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운의 주인공' 10명을 선정했는데, 무려 1만6천82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들은 5일 캐나다 토론토로 출발해 다음날 현지에서 김연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밴쿠버 올림픽 종합5위 경제적 가치는?

20조 2천억

우리나라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종합5위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20조원을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연구원은 직접효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홍보한 효과가 1조2천96억 원이라고 계산했다.

메달리스트의 방송 노출 시간이 사상

식 등을 포함해 30분가량인데, 여기에

올림픽 주요 방송사의 분당 광고비(약

은 3일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효

과' 보고서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선전은 직접효과와 파급효과를 합해 20조2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직접효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홍보한 효과가 1조2천96억 원이라고 계산했다.

메달리스트의 방송 노출 시간이 사상식 등을 포함해 30분가량인데, 여기에 올림픽 주요 방송사의 분당 광고비(약 240만 달러)에 환율(달러당 1천200원)을 적용한 것이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최정예 멤버 구성”

KBO 기술위 엔트리 5월 발표

“일본이 어떻게 꾸리든 상관없다. 우리는 최강팀을 구성해 나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가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최고 선수들을 내보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과 서정환, 김성환, 김용희, 이순철 기술위원은 3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대표팀 선발과 관련한 기술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굳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프로 선수들의 참가를 고려했던 일본이 최근 사회인 야구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의 실패를 거울삼아 최강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스타급 선수로 팀을 이뤘던 야구 대표팀은 2006년 도하 대회 때 대만

에 패한 뒤 일본 사회인 야구팀에도 패해 망신을 당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아시아 맹주 자리를 지키고자 기술위원회는 경쟁국 선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최고의 선수들을 총망라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또 “애초 7월 말까지인 1차 엔트리(60명) 발표 시기를 5월 말로 앞당길 수 있다”면서 대표 후보로 오른 선수들을 일찍부터 채찍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춘계야구 1승

광주일고야 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춘계야구대회 동상고과의 경기에서 7-0으로 승리했다. 광주일고, 동성고, 진흥고와 참가해 리그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회 우승팀은 4일 1승을 챙긴 광주일고와 1패를 기록중인 진흥고와의 대결에서 가려지게 됐다.

동성중은 전국 중학야구대회 예선을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 중장중과의 경기에서 6-2로 이겨 2승째를 수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진 누비는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제57회 3·1절 기념 강진군 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지난 2일 강진에서 개막됐다. 대회 이틀째인 4일 고등부 경기에서 참가 선수들이 푸릇푸릇한 보리밭 사이로 역주하고 있다. 올해 첫 전국도로사이클 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총 41개팀 4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간 닦은 기량을 겨루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연합뉴스